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

「학력사항」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사이타마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제31회(1987년)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 행정자치부 인사팀장
-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기획관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현)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실장



심보균

I. 고시입문 전

시골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에 공부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시려 했던 부모님 밑에서 용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칭 명문고로 진학하였고 그 때 이후로 온 가족의 배려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집안이 한 때 어려웠기에 비관도 했으나 종교적 힘으로 위안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매일의 생활을 끊임없는 반성과 다짐으로 보내던 중학시절이 감명 깊다. 그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도전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언젠가 성취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배웠었던 것이다.

나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생활해 왔다고 자부한다.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입학초기에는 중위권이었다가 졸업 때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정도의 노력으로 일관해 왔다. 일례로 우연히 만난 국민학교 때 친구는 내가 세칭 명문고에 다녔다는 사실을 믿으려 않았으며 서울대 들어갔다는 말은 아예 꺼낼 수 없게 할 정도로 나는 변모해 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내 인생은 다른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자극으로 격렬한 경험을 한다. 나의 인생관, 여성관, 사회관등 가치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vision, 나의 사회적

위치와 기대 등에서 큰 혼란이 생겨 고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라빛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 올라 즐겁고 희망찬 시절이 대학입학초기였다.

Meeting, circle활동, 야유회, 선배와의 시국대화 등으로 즐거웠으나 사대 졸업후의 진로에 회의를 품고 한 때 휴학까지 하며 전과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라는 쓰라리면서도 귀중하고 유익한 방향을 하였다.

II. 고시입문 동기

산뜻한 기본과 새로운 각오로 대학에 들어온 후 내 특기와 고망대로 영어교육과로 과배정을 받았다. 그런데 영어는 누구나 잘 해야 하는 도구과목일뿐 내 일생을 바치기가 싫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어떤 도전적 가치의 성취를 통해 내 능력을 키우고 정상회복의 기쁨을 얻고 싶었다. 가치박탈의 경험과 주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좀더 구체적 계기는 정치의 봄이 끝나는 5·17때 영등포에서 두려움없이 일어난 시위사건으로 처참한 권력적 횡포를 체험당했을 때이다. 고시에로의 신념을 불태우게 했다.

어느 고시삼관왕의 합격기를 보고 강인한 정신력과 공부방법론, 체력관리등 고시과정에 대한 감을 잡았다.

그러나 고시입문에는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필요했다. 출발당시부터 내가 고시합격을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과 글씨를 잘쓰지 못한다는 것과 책을 읽을 때 많은 분량을 체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독서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보완해야 하고 습득해야 할 그런 실력은 비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취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도전적 의욕이 솟구쳤다. 좋다! 병아리란 새 생명체가 계란껍질을 깨뜨리는 아픔을 거쳐야 탄생이 되듯이 나도 더욱 진일보(進一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 결점의 장벽을 깨부수고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거쳐 보자! 라고 각오했다.

III. 좌절된 재학시절의 꿈

1. 규칙적 오류

그런데 의외로 처음의 출발동기나 의욕과는 달리 다람쥐 쳇바퀴도는 듯한 악순환 속에서 규칙적 오류를 반복했다.

1차합격 → 2차낙방 → 1차합격 → 2차낙방...의 악순환 속에서 발견된 규칙적 오류란 처음 출발시 예상했던 나의 결점들로 인한 것과 여타의 반복되는 오류를 말한다. 즉, 글과 글씨력의 부족, 취약과목의 존재, 그리고 공부할 때나 시험볼 때 많은 것을 너무 성급히 봐나가고 생각하는 나머지 뒤죽박죽 써 몰 흐르듯 순조로운 논리성이 결여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

2. 과욕(過慾)

본래 외시에도 뜻이 있었는데 외시와 병행된 공부는 방대한 공부량만 늘렸고 내 결점인 형식, 논리, 요령 등에 관해 더 소홀하는 결과만 빚었다. 84년말과 85년초에는 행시 2차와 외시 2차를 연거푸 낙방함으로써 충격적 허탈감에서 방황된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한 책을 잘 소화하기 전에 다른 책을 구독하여 머리에 혼란을 일으키는 학습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85년 1학기에는 기업경영쪽에 진출하고자 경영학과에도 편입하였다가 매력을 못느끼고 다시 고시로 돌아온 방향의 시절도 과욕의 오판의 결과였다.

3. 메아리 없는 절규

같이 공부했던 또래의 친구들중 1차에는 가장 먼저 합격했지만 2차에는 늦게 붙고 말았다. 1차에는 항상 붙어 심초시(沈初試)라고 자위하기도 했다. 2차의 연속된 낙방은 좌절감을 심어줬으나 나를 더욱 성숙케 하고 인내하게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도전적 오기와 사나이의 승부근성을 키웠던 것 같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합격되고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얼마나 처참한 생각이 글던지 눈물과 통곡과 절규로써 나를 달래기도 했다.

밤중에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달을 보고 비장한 가락의 노래를 힘껏 불러대기도 했다. 산 아래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단단한 각오로 새로이 가다듬어 봤다.

그러나 스파르타식의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노력도 허탈하게도 메아리가 없었다. 참으로 처절했다. 나는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바위가 되었다.

IV. 험난했던 직장생활중의 공부

1. 입사결심

대학원재학 때까지로 시한을 잡고서도 내꿈은 포말(泡沫)로 되고 말았고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투성이의 패잔병이었다.

나도 능력이 있었는데... 이젠 나도 새로운 길에서 존경받으며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많은 햇빛도 받아보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이젠 자립해 보고 싶었다. 나의 전공을 살리는 교직에 가길 원했다. 10월말경 발령을 받았다.

2. 교직생활의 명암

패배와 경멸만 알았던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낯설면서도 달착지근한 호칭을 받고 나를 따르는 제자도 얻고 입사축연도 받으면서 오랫동안의 인생기쁨을 되찾았다.

또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한턱 낼 수도 있고 부모님께 보태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아! 이젠 사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행(幸)인지 불행(不幸)인지 젊은 사람은 빨리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충고를 주시는 선배교사 밑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 충고는 나를 적잖게 당혹케 했다. 학원강사하시는 광석형과는 직장이 가까워 자주 만났는데 고시가 제일이라며 자기와 같이 공부해 보자는 부탁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나름대로 교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느끼고 배우고 싶었다.

120여개의 눈망울들이 나 하나를 우러러보며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야릇한 희열을 느꼈고 긍지를 느꼈다.

그러나 결국 교직에서 좋고 나쁜 점들을 생각한 끝에 역시 고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부하기는 이제 더 어려워졌으니 그 점이 문제였다.

3. 직장생활의 학습전이

백면서생이었던 나는 뜻만 컸지 부족한 게 많았다. 나보다 학력이 낮지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그간 헛공부하고 헛살았다고 생각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특히 담당하다보니 아이들로부터도 배운 게 많았다. 담임으로서의 업무처리능력과 리더십, 담담회의에서의 자기의견 관철과 설득력, 내 담임학생이 문제처리를 둘러싼 처벌담당 교사와 나 그리고 학부모간의 격렬한 담판을 통한 의사전개기술등 생동감 넘치며 유용한 능력을 보충받았다.

예를들면 회의나 담판에서 그 의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한 다음 내 입장과 그 이론적 근거를 명쾌히 밝혀주지 않으면 의사가 묵살내지 거부된다는 것은 고시담판안작성요령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역으로 고시공부하면서 터득했던 체점위원에게 호감끄는 방식을 환경미화 심사 때 활용하여 1등한 적도 있다.

극과 극은 통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이렇듯 수험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벽났으나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4. 치열한 시간 확보노력

아무리 유기적 생활을 해도 시간확보가 안되면 고시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절대적 시간확보가 너무 어려워 한 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해 볼까도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그러지도 못하고 갈등과 번민속에서 지냈던 순간도 있었다.

직장에서의 공부는 바빠서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시간 확보를 위해 하숙도 옮겼으나 분위기가 안맞아 다시 신림동에 하숙을 정했다.

최대한의 시간확보를 위해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도 책을 펼쳐 보았고 직장버스로 갈아타기 전에 내리는 짬에도 다른 선생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을 읽어나갔다. 또한 책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내 손에 고시책을 휴대하고 다녀야 마음이 편했다. 합숙야영 훈련 가서 사진찍을 때도 책을 손에 쥐고 사진을 찍을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집에 돌아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는 문제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책을 보기 어려웠다.

결국 시간부족으로 항상 고민했는데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으로 능률적 공부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능률이란 단어를 이 때처럼 절실하게 새겨 본적도 없었던 것 같다.

5. 고비

86년에는 2차만 봤는데도 가장 저조한 점수로 떨어지고 보니 이제 고시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졌고, 꿈속의 일로 파묻혀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기업체진출이었다. 접수기간이 많이 지나버려 그 때까지 남아있던 금성사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응시했는데 재직중이었는데도 용케 합격이 되었고 그 기쁨은 대단히 컸다. 오랜만의 소득이었기 때문이다. 내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KOTRA로 입사하려고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영식형 등과 어느 역학자의 희망찬 충고를 받고 다시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손인근씨로부터 얻어 읽은 어느 장애자의 수기에서 “다방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소원이다”는 간절한 소망을 보고, 낙담하고 실의에 빠져있던 내가 부끄럽게 여겨졌다.

V. 31회 행시 합격과정

1. 재점검한 실패원인

그간 얻은 과목별 점수를 놓고 분석하니 행정학이 가장 취약했고 행정법, 심리학은 상위권이었으며 나머지는 조금씩 더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석결과를 보니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글씨를 개선하고 개념과 학자이름을 분명히 언급하며 이론적 기초를 꼭 밝혀 주고 쟁점과 논거를 변증법적 논리로 분명히 하고 현실문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모든 과목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릴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시간의 한계상, 경제학은 양이 너무 방대하지만 전에 공부한 것이 별로 잊혀지지 않았으므로 1회독 정도만 하고 장기과목(長期科目)인 행정법, 심리학은 시험에 입학하여 정리하면 될 것 같았다. 따라서 취약과목인 행정학을 겨울방학중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각문부터 읽어 나가기로 했다. 글씨개선을 위해 펜맨십도 사두고 써나갔다. 글씨는 연습때 뿐이고 늘지 않아서 고육책(苦肉策)으로 생각한 것이 제목들만이라도 정성들여 깨끗이 쓰기로 했다.

2. 1차 합격담

87년에는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2차 공부를 겨울방학중 정리해 놓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취약 과목인 행정학과 글씨연습도 제대로 궤도에 올리지 못한 채 개학

을 맞이하여 2학년 담임업무와 수업교재연구에 매달린 채 고시공부가 마음에만 있고 안되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착잡한 마음으로 잔인한 4월을 맞이했다. 공부는 안되고 업무는 바빠지며 건강은 악화되는 slump속에서도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려 했고 젊은 교사들과 처총당을 결성하여 필름이 끊길 정도로 흥뻑 취하고 즐기는 생활을 했다.

가정불화로 탈선·가출한 학생의 어머니가 나와의 상담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부부간의 화목과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하게 깨닫게 됐다. 너무도 도도한 유혹의 탈선물에 오염된 제자들을 불가피하게 제적시켜야 할 때는 교사로서의 비극적 무력과 무능을 느껴야 했다.

결핍하면 학교에 안나오고 집을 나가버리는 학생들을 지도하려니 하루종일 학생지도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담임으로서 책임감이 있었으므로 가정방문,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학부모에게로의 전화 등으로 퇴근 후에도 바쁘기만 했다.

공무에 매달리려고 책상에 앉아도 책속의 글이 보이기보다 결석, 가출한 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만 오락가락했다. 고시공부보다 학생지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래서 하루 기껏해야 공부는 채 한 시간도 할 수 없었다. 건강은 악화되었고 시험 1주일 전쯤에는 2박 3일의 야영합숙훈련까지 있어 1차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절망한 나머지 독서와 탁구운동으로 소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차에 떨어져 본적이 없었으므로 전략만 잘 세우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도 보였다.

시간은 많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확보된 시간내에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공부방법을 생각했다. 일단 취약과목부터 하고 자신있는 과목인 영어와 계속 봐왔던 행정학은 최악의 경우 안보고 가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취약과목인 국사와 민총은 교과서를 정독하면 실력이 늘 것 같았다. 국사는 문제집을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았고 민법총칙의 경우만 문제집을 1회정도 풀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헌법은 교과서를 봐도 암기가 잘 안되므로 강창웅저 문제집의 요약부분을 떼어 제본해 놓고 보기로 했다. 그 요약판을 보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같이 봐 나가니 이해도 빠랐고 시간도 꽤 절약할 수 있었다. 시간의 절대부족상황에서 가장 능률적 공부전략 경험을 토대로 세운 결과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1차전까지 국사, 민총 1회독, 헌법은 문제집의 3/4정도 밖에 못보았고 영어, 행정학은 손도 못대고 갔기에 내심 불안도 했다.

그러나 구력을 살려 최선을 다해 보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잘 버티었다. 시험보고 나니 행정학이 제일 걱정됐고 전체 평균하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 때는 불안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잘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별로 공부못해 불안하던 내가 되고보니 1차합격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3. 2차와 3차합격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 혼자만 1차에 합격해 미안함과 함께 그 기쁨은 대단했고 여세를 몰아 2차에서 끝장을 보자는 은근한 욕심이 생겼다. 2차 공부는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걱

정은 됐지만 때마침 방학이 끼었고 책을 1회독하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잡으면서 개념과 논점중심으로 읽어나가면 기억이 나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답안작성요령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시험의 실체가 눈에 환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았다. 특히 2차에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주관식이라 합격하기는 더 쉬운 것도 같았다. 논리적 틀과 요령에 따라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학자와 언어를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써도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모르는 문제는 요령을 부려 썼더니 점수가 잘 나온 편이었고 오히려 아는 문제라고 과잉욕심을 부려 논리적 틀에서 벗어나 비약한 것은 점수가 나빴다.

2차 첫날 첫과목 국민윤리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정치적 중립문제가 큰 문제로 나왔다. 신문구독증 본 선거중립내각과 관련지어 중립 개념을 소극적, 적극적 개념으로 나누어 논리적 틀을 만들어 썼다(61,33).

그런데 시험보는 끝날까지 바로 왼쪽 수험생이 코를 너무 소리내어 킁킁거리는 바람에 무척 신경쓰면서 시험치는 고통이 있었다.

행정법시간의 국가배상법문제는 옛날부터 별러 왔고 김남진저 교과서에서 잘 봐둔 터라 이론과 수해(水害)라는 현실문제를 연결시켜 자신있게 써 내려갔다(63,66). 첫날은 무사히 넘겼으나 항상 점수가 나빴던 둘째날의 행정학, 경제학이 문제였다. 본래가 내 취약과목이었던 행정학의 큰 문제는 소홀히 한 사회변동 문제가 나와 무척 당황스러웠다. 작은 문제들도 공부한지가 오래돼 기억이 가물거렸다. 먼저 심호흡을 했다. 이런 때를 예상해서 마련해 둔 답안작성요령을 떠올렸다. 일단 개념을 쓰고 그 이론적 기초를 밝혀주고 이론적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서술해 갔다. 1~2명의 학자이름과 용어를 원어로 써서 그럴듯하게 꾸며냈다. 너무 당황했었기에 겨우 써나갔다. 발표 때까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과목이었다(45,66).

경제학은 큰 문제가 거시적 일반균형론 문제였다. 너무 광범한 문제라 자칫하면 전체 흐름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 개념과 쟁점중심으로 답안작성요령에 따라 수식과 도표를 섞어 써나갔다. 작은 문제에서 경쟁시장의 실패를 언급해야 하는 것을 빠뜨리고 oversense해서 보상 기준까지 언급해 실점했던 것 같다(54366).

셋째날은 항상 점수가 제일 좋았던 날인데 둘째날까지의 피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잤다가 늦게 깨어나 벨엘총무를 깨워 단헛던 독서실 섯터를 열고 집에 가는 소동을 일으켰다.

정치학은 큰 문제가 집단이론문제였는데 서울대 행대 입시문제의 조합주의를 보고 대비했었기에 잘 쓸 수 있었다(64,00).

심리학은 큰 문제가 Piaget문제였는데 8인 공저를 보고 요약했던 것을 활용하여 무난히 썼다(70,00)

넷째날 정책학은 항상 50점대로만 맞은 과목이었다. 큰 문제는 정책분석 문제였는데 서울대 행대입시문제로 본 바가 있어 정리한 적이 있었으므로 무난히 썼다. 작은 문제에서 정

책정보체제는 내가 본 교과서에 없는 문제였지만 MIS를 염두에 두고 적당히 틀을 맞춰 엮어 나갔다(64.00).

2차 시험을 보고나니 행정학을 빼고는 무난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생지도와 수업을 하다보니 세월은 잘 흘러갔고 시험발표일은 다가왔다.

공교롭게도 시험발표 때가 우리 학교 축제기간이었고 특히 발표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행사로 즐기는 날이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돼지머리를 놓고 술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마치 시험에 붙을 것을 기원하거나 붙은 것은 미리 알고 축하해 주는 것 같아 마음 속으로 굉장히 흐뭇했다. 아니나다를까 그 날 직접 합격여부를 확인하기가 두려워 기기(知己)인 철수형을 찾아 갔는데 기묘하게도 그 집 문턱에서 그 형이 다른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보균이 됐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일시에 만감(萬感)이 교차함을 느껴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화로 아버님께 통보해 드리면서 목메인 음성을 듣고 더욱 큰 감격적 기쁨을 맛보았다. 합격이 당장 무얼 안겨줘서라기보다 이제야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났구나하는 생각이 아찔한 정도로 후련케 했다.

학교에서는 내밀히 공부해 왔었기에 동료선생님들로부터 놀람섞인 축하인사를 받았고 놀라 감탄해 하는 우리반 학생들로부터 우렁찬 축하박수와 꽃다발을 받고 하룻밤 자고나보니 유명해져 버린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3차 면접에 대해서는 동료교사나 아는 친구에게서 면접 모의테스트를 받으면서 준비했다. 시사문제를 생각해 보고 갔었는데 개별면접에서는 신상문제와 공직관을 물었고, 오후 집단면접에서는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관계라는 주제를 발표시켰다. 또렷한 말씨로 논리적으로 차분히 말하면 되는 것 같았다.

VI. 글을 끝맺으며

늦게 뜻을 이루어 부끄럽기도 하나,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험을 통해 나의 결점을 극복하는 뼈아픈 성숙을 맛보았고 직장생활중 합격이라는 남다른 의미도 있어 선뜻 합격기청탁에 응하게 됐다. 그러나 이 합격이 나 혼자만의 작품은 결코 아니었다.

멀리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인간미 넘치시며 천부적으로 근면하신 법선제고시원의 황세웅 원장님과 인정많은 벨엘의 총무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